

**Korean Phonetic Characteristics reflected  
in the Pronunciation of French :**  
**한국인의 불어발음에 나타나는 음성학적 특징**

박 혜 진 / Hay-Jeanne Park

### Résumé

La structure syllabique est un facteur important dans la prononciation d'une langue. Dans cette thèse, on a essayé de montrer que les caractéristiques de la syllabe varie d'une langue à une autre, et que les règles qui régissent la syllabe dans la langue maternelle a le dessus et donc fait appliquer ses règles à la langue étrangère.

Premièrement, l'accentuation du coréen dépend de la structure syllabique (qu'elle soit consonne-voyelle(CV) ou consonne-voyelle-consonne(CVC)) et de la longueur de la voyelle. Ce qui fait que bien que le français soit oxyton, et que la longueur et la qualité de la voyelle dépendent de la structure syllabique, le français parlé par les coréens suit les règles du coréen. Autre caractéristique est que le coréen n'admet pas de suite de consonnes avant et après la voyelle centrale comme dans "premier"[prə mje], "autre"[o:tr]. D'où l'insertion de voyelle superflue comme [u, ʌ, ə]. Troisièmement, il existe une différence dans la coupe de la chaîne parlée : en coréen la coupe écrite(le blanc) égale à peu près à la coupe orale(la pause) alors qu'en français, c'est en groupe de mots que se fait la coupe. A l'intérieur du groupe, les mots sont liés entre eux, soit par liaison, soit par enchaînement. On peut remarquer donc une nette influence du coréen, où la règle est de prononcer correctement par unités écrites (équivalent des mots en français) : la chaîne parlée devient saccadée, avec un accent sur tous les mots, et des coups de glotte entre les mots, et l'une des voyelles [u, ʌ, ə] insérée entre un mot se terminant par une consonne suivi d'un mot qui commence par une consonne.

#### I. 서론

어느 외국어든지 이를 학습하는 화자의 모국어와 깊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어는 모국어와의 관계속에서, 모국어가 주는 영향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살펴 보면서 연구해야 한다.

한국인의 불어발음을 살펴볼 때 단순히 한국어의 발음과 불어의 발음을 비교하는 것

보다 보다 큰 틀 속에서 발음을 살펴볼 때 문제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한국인의 불어발음이 표준불어발음과 차이를 보이는 원인을 이들 두 언어의 음절구조상의 차이, 음절구조내의 규칙의 차이에서 찾아보려는 시도를 했다.

소리언어를 발음이라는 면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다 큰 틀에서, 즉 음절구조라는 보다 큰 틀 속에서 생각해 보고 문제점을 이해하고 설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두 언어의 개별 음 그 자체로만 대응시켜서 비교할 때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을 큰 차원에서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한다.

## II. 본론

### 1. 강세

1.1. 한국어의 경우, 모음의 길이, 그리고 한 음절 안에 종성자음이 있는지 여부가 강세의 위치를 좌우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단어의 첫 음절에 :

1) 종성이 있을 때 (CVC음절) - 첫음절에 강세가 온다.

예) '책상, '발표, '컴퓨터

2) 종성이 없고 단모음일 때(CV음절) - 다음 음절인 2음절에 강세가 온다.

예) 표'출, 기'자, 도'움말

3) 장모음일 때(CV:(C)음절) - 종성 자음이 있든 없든 간에 강세를 받는다.

예) '사:람, '소:원, '감:사(고마움)<sup>1)</sup>

1.2. 불어에서는, 음절의 구조나 모음의 길이와 상관없이 강세는 그 단어의 어말 음절에 놓인다.

예) bon'jour, par'fait, apprivoi'ser, impo'ssible

1.3. 한국인이 불어를 발음할 때에는 몸에 배어 있는 위의 한국어의 강세 규칙을 적용시키기 때문에 표준불어에서 볼 수 있는 위치에서와는 다르게 강세가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예) regarder [Rə gar de]

CV-CVC-CV : 불어의 강세는 자연히 3음절에 놓이지만, 한국인은 1음절의 모음이 짧기 때문에 한국어의 강세규칙에 따라 2음절에 강세를 놓는다.

예) longtemps [lɔ̃ tɑ̃]

CV:-CV : 비모음들은 다른 모음들보다 대체적으로 길기 때문에 장음이라 할 수가 있다. 그러나 표준불어에서 강세는 이와 무관하게 어말 음절인 2음절에 있다. 한국인은 첫음절에 강세가 오게 발음하는데 그 이유로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다 : 1) 한국어의 음절구조를 생각하면, 첫 음절에 장모음이 있으므로 강세가 오게 된다. 2) 비모음인 [ɔ̃]이 모음+자음(즉, [oŋ])으로 발음이 되어 결과적으로 음절구조가 CVC로 변하면서 강세를 받게 된다.

1) 이 현복(1993) 참조.

즉, 한국어의 음절구조에 의한 강세 위치가 그대로 불어에도 반영되는 것이다.

## 2. 음절 구조와 모음의 성격

2.1. 불어에서 음절구조는 모음의 길이에 영향을 준다 - 종성이 없는 음절(CV)내에 있는 모음의 길이는 짧다. 그러나 종성이 있는 음절(CVC)일 경우에는 모음의 특성상 아무리 짧은 음이라도 CV음절의 모음보다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 1 raie[ˈʀɛ] 2 beauté[boˈtɛ] 3 proposa[proˈpɔːza] 4 triste[ˈtʀiːst] 5 il ajouta[il aʒuˈta]  
reine[ˈʀɛːn] baume[ˈboːm] propose[proˈpɔːz] tristesse[tʀiˈstɛːs] il ajoute[il aʒuːt]

한국어에서는 음절구조가 모음의 길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한국인의 발음에는 이러한 길이의 차이를 볼 수가 없다 :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짧게 나고, 또한 어말 자음 뒤에 짧은 [u]를 들을 수 있다.

예) 한국인의 불어발음 : 1reine[ˈʀɛnnu] 2baume[ˈbommu] 3proposé[ˈpropozu]  
4tristesse[ˈtristesu] 5il ajoute[il aʒutu]

물론 강세 또한 한국어의 강세 기준에 따라 1-4 경우에는 1음절에 위치한다.

한국어로 의미없는 단어를 쓸 때 CVC음절이 있을 경우, 항상 모음이 짧게 발음된다.

예) \*분데스, \*봉주르, \*이브몽땅

불어를 한국어로 표기하거나 한국인이 불어를 발음할 때는 여느 의미없는 단어 또는 단위와 마찬가지로 모음은 항상 짧게 나타난다. 불어에서는 한국어와는 달리 음절구조에 따라 모음의 길이가 조정된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2.2. 불어에는 폐모음(closed vowel)/개모음(open vowel)으로 쌍을 이루는 모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음절구조에 따라 나오게 되는 경우가 달라진다 - 이들 모음은 [e/ɛ], [o/ɔ], [ø/œ]인데, 종성자음이 없을 때는 규칙적으로 폐모음(voyelle fermée)이 오고, 종성자음이 있을 경우에는 그 앞에 개모음(voyelle ouverte)이 온다. 이것은 철자상으로는 표시가 안되므로 이러한 규칙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모두 폐모음으로, 즉 [e, o, ø]로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

예) parler / (ils) parlèrent , peu / peur, mot / morne,  
CV / CVC , CV / CVC , CV / CVC ,  
[paːrle] [paːrɛːr] [pø] [pœːr] [mo] [mɔːrn]

\* [e]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다 : 한국인들은 이 폐모음 발음을 잘 못하여서 대개 [ɛ]에 가까운 음을 내기 때문에, 이 경우 두 개 다 [ɛ]로 발음한다. 따라서 한국인의 불어발음을 보자면,

[paːrle] [paːrɛru] [pø] [pœru] [mo] [mɔːrn] 가 된다.

## 3. [ʔ], [ɿ, ɨ, ə] 삽입 현상

한국어에서는 끊어읽기 단위가 띄어쓰기 단위와 비슷하여서, 이 또한 불어의 읽기 또는 말하기에 영향을 미친다 : 불어의 띄어쓰기는 단어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일정한 단어

군(groupe de mots)으로 문법적인 기능에 따라 연결시켜서 발화하거나 끊어읽기를 하게 된다. 따라서, 띄어쓰기와는 다르게 끊어읽기를 하게 되는데, 한국인의 발음 습관상 단어 단위로 끊어 말하다보니 단어와 단어사이에 성문 파열음[ʔ]이 많이 삽입되게 되고 자음으로 끝나는 단어일 경우에는 [ ʔ, —, ə] 중에 하나가 삽입된다.

### 3.1. Liaison(연독법)과 Enchaînement(이음법)

연독법은 종성의 자음이 원래 발음이 안되지만, 다음 단어가 모음으로 시작할 때 연결하여 발음하면서 들리게 하는 방법이다.

반면, 이음법은 원래 발음이 되는 종성 위치에 놓이는 자음 또는 모음을 다음 단어를 시작하는 모음과 연결하여 발음하는 방법을 일컫는다.

예) 연독 : petit ami [pəti] + [ami] = [pətitami] ;

이음 : petite ami [pəti:t] + [ami] = [pətitami] ;

예) toujours utile은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 : 연독을 하면 : [tuʒu:rzyti:l]

이어서 읽으면 : [tuʒuryti:l]

#### 3.1.1. 연독법

불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단어를 연결시켜 발음한다. 그중에 필수적인 것(obligatory)과 선택적인 것(optional)이 있고, 또 예외 항목이 있다. 따라서 연독법 규칙을 알아야 하고 또한 이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연독해야 할 자리에 성문 파열음이 들어가게 된다.

예) 비음+모음 = 비음+[n]+모음 ... on\_a, en\_avez-vous?, j'en\_ai trop...

d + 모음 = [t]+모음 ... grand\_homme, quand\_on parle beaucoup,

#### 3.1.2. 이음법

위에서 설명한 이음법(enchaînement)에 관해서는 학습과정 중에 언급되는 적이 없기 때문에 한국인이 불어를 말할 때 몇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볼 수 있게 된다.

1) 단어사이를 뚜렷이 끊어서 발음한다. 따라서 문장이나 구 단위의 억양이 부자연스럽게 나타나고, 대개 단어마다 강세가 들어간다.

2) 단어와 단어 사이가 자음+자음 또는 자음+모음 일 경우, [ə]나 [—], [ ʔ]가 삽입된다. 이것은 아래에서 다루는 어말개방(détente finale)과 연결되는 부분이다.

3) 모음+모음일 경우 (hiatus를 이룰 때) 연결시키지를 않고 성문파열음인 [ʔ]을 사이에 삽입하여, 단어경계를 분명히 나타내고자 한다 : 이를 coup de glotte라고 부른다. 물론 자음+모음 인 경우에도 이음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 또는 [ ʔ]가 들어가게 되므로, 그 사이에 [ʔ]가 들어가게 된다.

예) tout le monde[—/ə] apporte[—/ə] [ʔ] son [ʔ] argent

위의 현상은 강세의 위치에, 음절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된다.

예) [ə]나 [—], [ ʔ]를 삽입하게 될 경우 음절이 하나 더 생기게 된다 :

petite [pətitw] - [pə'ti:t]와 같이 [ti:t]에 강세가 오는 2음절 단어여야 하는 것이, [i]

는 짧아지고, 종성에 있어야 할 자음이 3음절 초성 위치에 오는 3음절 단어로 변해버린다.

예)	Je reste[ʁ] avec lui	Je vais [ʁ] à [ʁ] Arles
표준 발음 :	[ʒə RE:st avək lɥi]	[ʒə vɛ(z) a a:ʁl]
한국인 발음 :	[ʒu Rɛstʉ ? avɛkʉ lɥi]	[ʒu vɛ ? a ? aʁʉlʉ]

### 3.2. 어말개방/détente finale

불어 단어에서 자음으로 끝날 경우 그 자음이 유성이든 무성이든 약간의 release가 있다. 이 현상은 불어에서 어말 자음을 발음한 후 혀가 기본 위치로 되돌아 가는 동안 나는 소리이다. 한국어에서는 어말자음(종성)은 파열이 안되기 때문에 발화가 끝나는 순간 더 이상 소리가 만나지만(예) 발[bat<sup>h</sup>]), 불어의 경우에는 혀가 제자리(즉, 말 안할 때 편히 쉬는 위치-resting position)로 되돌아 올 때까지 계속 되기 때문에 파열이 있다고 본다.

불어의 어말 이완 현상을 들으면 마치 [ㅡ]가 따르는 듯 하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다. 한국어와 비교하면, 기식이 들어가지 않은 된소리와 같다 :

예) patte [pa:t] : 1)[ 뻘 ] - 2)[ 빠뜨 ] - 3)[ 빠ㅌ ]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어를 표기할 수 있지만 1)의 경우는 종성자음의 파열이 없는 발음이라 다르고, 2)는 1음절 단어가 2음절로 표시가 되며, 강세위치도 변한다. 3)은 [뜨]에서 [ㅡ]를 뺀 발음인데 이것이 불어발음에 가장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말의 특성상 모음없이 파열하는 자음만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결국은 2)가 제일 근접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파열음[p, t, k, b, d, g]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유성이든 무성이든 모든 자음에 해당한다 : [l, m, n, R, s, z, f, v, ʃ, ʒ, ʝ].

예) mille [mi:l] : 1) [ 밀 ] - 2) [ 밀르 ] - 3) [ 밀:르 ]

더군다나 한국어에서도 모음이 한 음절내에서 중심역할을 하는데, [ㅡ]라는 모음은 새로운 음절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새로운 음절이 생기면서, 그 단어의 강세 위치가 변할 수가 있다.

예) charmante 표준불어 / 한국인의 불어

[ʃa:R'mɑ̃:t] / [ʃa'rumɑ̃ntʉ]

- 강세 위치 차이 : 같은 2음절이지만 음절 수가 늘어나서 위치가 달라졌다  
 - 모음 길이 차이 : 1, 2음절 모두 종성자음이 있기 때문에 [a, ɑ̃]이 길어져야 하지만, 실제 발음을 할 때 한국인은 길이에 변화를 두지 않고, 비모음은 모음+비자음[j]으로 발음한다.

- 음절 구조에 따라 나타나게 된 모음 [ɔ]

### III. 결론

여느 모국어와 외국어와의 관계속에서도 마찬가지로이지만, 한국어의 음성학적인 특성

들은 외국어로서 접하게 되는 불어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준다. 한국어에 있어서 음절구조는 강세의 위치를 정하는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불어의 고정적인 강세위치를 한국어식으로 옮겨다니게 만든다.

반면, 불어에 있어서 음절구조는 모음의 길이와 개폐정도를 결정짓지만, 한국어 음절구조의 기능상 이러한 역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어의 이러한 중요한 특성을 간과하게 된다.

또한, 한국어에는 초성에든, 종성에든 여러개의 자음이 연속적으로 올 수 없기 때문에 자음과 자음 사이에는 [j, ɥ, w] 중에 하나가 삽입되게 되고, 단어사이에 연음/연독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단어와 단어 사이를 끊어 읽음과 동시에 성문파열음이 자주 삽입되는 현상을 살필 수가 있다.

음절을 이루는 요소들 가운데 모음을 중심으로 연구를 시도했지만 앞으로 여기서 다루지 못한 자음과 [j, ɥ, w], 그리고 어말개방(*détente finale*)들뿐만 아니라 음절단위보다 더 큰 단위에 대한 이어지는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탤이 의미 전달에 얼마나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되는지를 밝히는 데 기초작업이 되리라 생각한다.

### 참고문헌

- 이 현복, 1993,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_\_\_\_\_, 1981,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과학사  
 Carton F., 1974, *Introduction à la Phonétique du Français*, Bordas  
 Léon P., 1992, *Phonétisme et Prononciations du Français*, Nathan  
 Malmberg B., 1971, *La Phonétique*, Que-Sais-Je, PUF  
 Muller Bodo, 1985, *Le français d'aujourd'hui*, Paris, Klincksieck